

광주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대기오염배출 사업장·공사장 특별점검 등 현장훈련 등

광주시는 14일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시기(매년 12월~다음해 3월) 전, 관계기관별 준비 상황과 협조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상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150㎍/m³ 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도 75㎍/m³ 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현장·서면 훈련을 병행해 진행한다.

현장(실제) 훈련은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동률 조정,

관급 공사장인 광주대표도서관 노후건설장비 사용 제한 등 특별점검, 지공해 미 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태료 미 부과),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도로청소 강화, 미세먼지 민감계층 대상 매뉴얼 전파 등이다.

이번 훈련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상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시민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이행 체계를 점검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는데 역할을 두고 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일상 기자

다 함께 놀자 ‘동구 청소년 축제’ 개최

청소년 기획·운영 주도…공연·놀이부스 등 풍성



동구는 지난 11일 5·18민주광장에서 청소년과 주민 등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구 청소년 다 함께 놀자’를 주제로 ‘동구 청소년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구청소년문화의집과 동구청소년수련관이 연합 추진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의 기획부터 운영과 모니터링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축제는 모범 청소년과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입택 동구청장과 함께하는 ‘청소년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소년 17팀이 선보이는 공연과 다양한 체험·놀이·먹거리 부스에서는 키팅·빠빠로 만들기, 환경보호 캠페인 등이 펼쳐졌다.

특히 ‘동구 청소년 다 함께 놀자’라는 행사명에 맞게 학업과 진로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껏 축제를 즐기는 청소년들로 성황을 이뤘다. /김도기 기자

광산구, 식중독 예방 우수기관 표창

식약처 주관 평가 우수 자치구 선정



광산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2023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 광산구는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추진의 효과 및 목표 달성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식중독 예방 홍보 집중의 달 운영(식중독 로그아웃!) △음식점 위생등급제 동영상 제작·홍보 △

여름철 식중독 비상근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홍보 등 식중독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큰 주목을 받았다.

광산구는 지난 9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2023년 식중독 예방관리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 정순덕 식품위생팀장이 구를 대표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또 광산구 식품위생과 고은민주무관은 유공 공무원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동기 기자

서구, 화정1동 키보드 전용주차장 ‘눈길’

안전한 사용 위해 지하철 역 등 관내 6개소 설치

서구 화정1동에 전용 키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화정1동은 마을BI ‘함께 있다, 안전마을’에 맞춰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용키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보드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다.

키보드 전용 주차장 설치 장소는 화정1동 ▲쌍촌역 4번 출구 ▲화정역 4번 출구 ▲농성역 5번 출구 ▲상무대로 육교 아래 ▲화정새마을금고 앞 ▲해광상그릴라 아파트앞이다. 이곳은 주민 수요조사, 키보드 업체 데이터 활용 및 서부경찰



서와 협의를 통해 주요 승차차 구역 주변 위주로 보도 여유 공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선정했다. /조선주 기자

광주시, 16일 수험생 특별교통대책 추진

종합상황실 운영…19개 기관·단체 563명 긴급수송 등 참여

38곳 시험장 경유 시내버스 43개노선 등교시간 전 집중배차

광주시는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지역 수험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6곳 19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경찰·모범운전자회 등 19개 기관·단체 563명이 동시에 시험장별 교통소통·수험생 긴급수송 등에 참여한다. 수능시험 당일 오전 6시부터는 교

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공무원·교통경찰·모범운전자 회원을 배치,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험장 주변(200m 이내)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시내버스 기·종점 14곳과 시험장 주변 지하철 역사 7곳에는 질서요원 70여 명을 배치, 차량이 정시 운행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시험장 경유지와 지하철 역사의 시험장 방향 출구

안내 등 수험생 필요 정보도 제공한다.

시험장을 경유하는 38개교 43개 노선에 시내버스를 등교시간 전 집중배차(오전 6시~7시30분)하고, 버스 안에 시험장과 정차할 정류소를 알려주는 안내문을 부착해 수험생들의 원활한이동을 돕는다.

장애인 수험생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사전예약을 통해 교통약자 전용택시로 시험장 등하교를 지원하

광주 수능 38개 시험장 1만6089명 응시…시험준비 만전

재학생 1만112명·졸업생 4332명 등

지난해 대비 631명 줄어…재학생 비율 역대 가장 낮아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관내 38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지역 수능시험장(26지구)은 총 38개교이고, 응시자는 총 1만 6089명(재학생 1만 112명, 졸업생 4332명, 검정고시 합격자 등 645명)으로 지난해보다 631명 줄었다. 전년도에 이어 졸업생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 재학생 비율은 역대 수능 중 가장 낮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당초 예정된 시험장·시험실에서 일반 수험생과 함께 시험에 응시한다. 다만 시험장 내에서는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점심 식사는 시험장 내 마련된 별도 장소에서 할 것을

권고한다. 한편 모든 수험생은 수능 전날인 15일 오전에 수험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소속(출신)학교에서 수험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 접수한 검정고시·타시도 고교 졸업 수험생의 경우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험표를 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수험표를 받고 해당 시험장 위치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수능에 응시해야 한다. 수능시험날인 16일에는 8시 10분 전에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장에 갈 때는 수험표, 신분증, 도시락, 물을 꼭 챙겨가야 한다. 혹시라도 수험표나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갔으면, 시험장 관리본부로 찾아가서 말하면 해결할 수 있다. /조선주 기자

영광 럽피스킨 의심신고 ‘판정 불가’…살처분 보류

백신 접종 후 일시적 결절 발생 가능성…오늘 재검사 결과

영광 한우농장에서 전남지역 세 번째 럽피스킨 의심가축이 발생했으나 판정 불가 결과가 나와 재검사가 이뤄진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광군 흥농읍 한 한우농장에서 럽피스킨 의심 증상이 신고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판정 불가 결정이 나왔다.

이 한우농장에서는 지난 12일 오전 일부 한우에서 피부결절이 확인

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차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추가 시료를 채취해 재검사에 나섰으며, 최종 결과는 14일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2마리를 살처분 할 예정이었으나, 판정 불가가 나오자 살처분도 보류했다.

광주서 세계 한글작가대회 열린다…작가 한강 참석

특별강연·포럼 등 다채…오늘부터 17일까지

한글 문학의 명성과 위상을 드높이는 자리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문학관·김대중컨벤션센터·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2023 제9회 세계한글작가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광주시가 후원하고 국제펜한국본부가 주관하는 세계한글작가대회는 세계적인 작가와 한글 관련 학자들이 다양한 강연과 열린 토론의 장을 펼치며, 한글 문학을 통해 전 세계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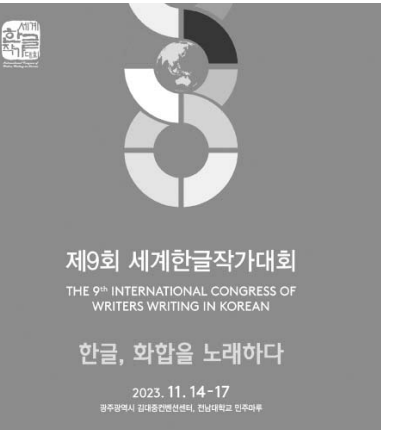
‘한글, 세계와 화합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한강 작가를 비롯해 김홍신·현기영 작가 등 대표 문인과 문학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특별강연·광주청년작가 문학포럼·주제발표 등이 이어진다.

오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15일에는 특별강연이 펼쳐진다. 특별강연에는 팬부커상에 이어 메디치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국내 최초 밀리언셀러가 된 장편소설 ‘인간시장’의 김홍신 작가, 몽골의 불강타미링 바트체첵 작가가 강사로 참여, 강연과 함께 독자와의 대화를 갖는다.

또 15일 광주문학관에서는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작가 40여 명과 광주의 문학동인·창작동인·문화콘텐츠 작가 지망생 등의 참여로 ‘문학 청년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제로 한 특별세션이 열린다. 16일에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로 장소를 옮겨 4·3사건을 다룬 소설 ‘순이삼촌’의 현기영 작가와 함께 하는 특별강연이 이어진다.

광주청년작가문학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문학산업’ ‘한국 문학과 청년, 미래 문학을 말한다’를 주



제로 한글과 한국문학을 조망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14~15일 대회장인 김대중컨벤션센터·전남대학교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치면 특별강연·문학강연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라운드 포럼으로 진행되는 광주청년작가 문학포럼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국제펜(PEN)한국본부 광주지역위원회에서 신청서를 받아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조일상 기자

며, 시험 입실시간에 임박한 수험생의 경우 112로 신고하면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순찰차 등이 출동해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한다.

수능 당일 공공기관 등 출근시간이 오전 10시로 평소보다 한 시간 늦춰지고, 등기시험 시간대인 오후 1시10분부터 35분까지 25분간은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김석웅 시 교통국장은 “수험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장 도착을 위해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능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차량정적 등 소음 자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2024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본인선택) 접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오는 20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2024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블록체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등)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내년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직접 선택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어 복무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선발은 지원횟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하며, 전공자 배치 필요성이 높은 복무기관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한다.

선발결과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종합사회복지관

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 표창’

순천경찰서는 치안파트너인 순천종합사회복지관·조곡동 청년회가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사회적약자 보호’와 ‘치안거버넌스’ 부문에서 각각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경찰청과 중앙일보 공동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며 ▲치안거버넌스 ▲사회적약자 보호 ▲CPTED 부문으로 나누어 범죄예방을 위한 우수한 정책과 활동 사례가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사회적약자 보호 부문에서 수상한 ‘순천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부터 독거노인·장애인·이주여성 등 사회적약자를 발굴해 개인 봉사자 등과 함께 이동 세탁·밀반찬 배달·이주여성 지원사업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경찰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범죄피해 제로화를 추진하는 등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에 기여했다.

치안거버넌스 부문에서 수상한 ‘조곡동 청년회’는 2000년부터 어두운 골목길 등 범죄 취약장소에 CCTV 및 태양광 벤치 설치·노후주택 수리·벽화사업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찰과 주기적인 합동 순찰 및 귀갓길 동행서비스를 실시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김남희 순천경찰서장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각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안심 치안환경을 만들어나겠다”고 밝혔다.